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7일 월요일 음 9월 9일 (1물)

기상정보

흐리고 한 때 비



제주도는 흐리고 낮동안 산지와 남동부 지역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19-20℃, 낮 최고 기온은 24-25℃로 예상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snow, and wind.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해질.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able with 3 columns: 내일, 구름 많음, 18/23℃.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oday and tomorrow.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감기가늘지수. Rows show health-related indices.

월드뉴스

북미협상 결렬... 간극 못 좁혀 돌파구 실패

'노딜'로 비핵화 중대 기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간) 결렬됐다. 북미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협상이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또다시 '노딜'로 귀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북김명길-미비건 실무협상.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고 말했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의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어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반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 대사의 성명 발표 후 3시간여만에 이뤄진 성명 발표에서 김 대사의 결렬 선언과 관련,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며 "북한 대표단에서 나온 앞선 논평은 오늘 8시간 반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북측의 책임 제기론을 정면 반박했다.

한라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현영중 편집부국장

배우 김영철씨가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CF 부문)을 수상했다.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 등이 주관하고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는, 올 한 해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4딸라'의 경제학

솜는 와중에도 4000원대 가격을 고수하는 음식점이 신기할 수 밖에 없다. 2000원짜리 우거지얼큰탕을 파는 식당에서부터 자장면과 탕수육을 2000~3000원에 판매하는 식당, 3500원에 칼국수를 내놓는 음식점 등이 망라돼 있다.

제주에도 '4딸라'를 고집하는 음식점이 몇 곳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C씨동은 멸치국수를 4000원에 내놓는다. 몇년째 이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서비스업 분식 역시 유명세를 타는 곳 중 하나다. 표고버섯칼국수와 제주 토속 육개장을 4500원에 판매한다. 오전 11

시만 되면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손님이 몰린다. 다녀간 이들은 한결같이 '맛도 좋을 뿐더러 가성비도 최고'라고 극찬한다. 자리를 옮기기 전 작심하고 찾았다가 대기 손님이 너무 많아 발길을 돌렸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음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몇몇 식당의 고기국수는 얼마 전 8000원으로 올랐다. 일부 음식점의 김치·된장찌개도 8000원으로 오른지 오래다. 1만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음식들도 적잖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선정된 업소에는 명패 지원, 필요한 기자재 및 구입비 보

조, 종량제봉투 지원, 상수도요금 등 보조, 홍보·마케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모두 138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무엇보다 업주 개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마케팅도 필요하다. 형식적 지원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에서 인증하고,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열린마당

자전거와 벗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김진숙 제주시 서부보건소

자전거 타기 좋은 가을이다.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제주의 구석구석을 달리다보면 제주의 또 다른 아름다움과 마주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전거 타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첫째, 유방암 발생율을 낮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암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자전거를 일주일에 평균 3시간씩 탄 여성의 유방암 발생율이 34%정도 낮게 나타났다.

을 잡기 위해 신체가 반응해 좌·우 근육이 골고루 발달해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 준다. 넷째, 심폐 지구력과 전신 지구력이 좋아진다. 자전거 타기 자체로도 칼로리 소모량이 많고 근육량 증가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또한 자전거는 심각한 교통과 환경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 제주에는 제주도를 일주할 수 있는 환상의 자전거 길이 조성돼 있다.

또한 자전거는 심각한 교통과 환경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 제주에는 제주도를 일주할 수 있는 환상의 자전거 길이 조성돼 있다.

청정한 하늘과 바다를 벗 삼아 해안도로나 발담이 어우러진 농로길, 해조류 및 농산물을 따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안전에 위험이 된다.

미래의 재산 가로수의 가치



오종민 제주시 공원녹지과

이문제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는 노래를 듣다보면 가사처럼 가로수 그늘 아래에서 담소를 나누고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려 땀을 흘리며 모여 있던 행복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곤 하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들어 아쉽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상권이 활성화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가로수가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가로수가 주는 대표적인 순기능은 현재 가장 큰 이슈거리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다. 도로와 인도, 그리고 주

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흡착해 저감하는 역할을 하며 한여름 복사열을 줄이고 소음을 감소시키며, 시민들에게 휴식과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나무 한그루가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산소 1.8t을 방출하며,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낮추고 자동차 소음 75-80%를 감소시키는 것을 보면 가로수는 이용시설과 우리 생활공간 사이에서 엄청난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개발붐의 후폭풍으로 제주의 생태공간의 가치와 녹색공간의 중요성이 이슈화 되면서 가로수 또한 그 이슈의 중심에 있고, 미래의 가치에 대해 열린 정책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답답한 도심에서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가로수 길을 현재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시민들도 천천히 걸으며 가로수가 주는 혜택을 함께 향유했으면 한다.

Large advertisement for '페르카칼슘비료' (Perca Calcium Fertilizer)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detailed benefits for agriculture.

Advertisement for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Jeju Remodeling) listing services like renovation and painting.

Advertisement for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Jeju Telecom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y Hanra) listing various IT services.